

고교학점제 지역 불이익 완화 학생이 처한 교육여건 등 고려

대교협 2029학년도 대입 기본사항
과목 이수노력까지 평가반영 권장
농어촌학생특별전형 거주요건 개정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학교 규모와 지역에 따른 '과목 선택권 격차'가 대입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9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이 소규모·농산어촌 학교 학생의 과목 이수노력을 고려하도록 권장된다.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생이 처한 교육 여건과 이수 노력까지 대입 평가에서 살펴보라는 취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과 교육청 등의 의견수렴과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29학년도 대입 기본사항에는 대학이 전형을 운영할 때 지원자의 출신 고교 교육과정 편제 등에 따른 과목 수강 노력을 고려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소규모학교나 농산어촌 소재 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기 어려워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을 이용한 경우 이 같은 사정을 평가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생의 과목 선택이 중요해진 반면 학교별 과목 개설 여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수와 교원 수가 적은 소규모학교는 대규모 학교보다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5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고2 기준 평균 선택과목 개설 수는 서울이 40개였지만 경북은 30개, 전남은 27개에 그쳤다. 소규모학교의 공동교육과정 의존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할 때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과목 개설 유형 등을 대학과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평가하도록 하고, 소규모·농산어촌 학교 등 지원자의 출신고교 교육과정 편제에 따른 과목 수강 노력도 고려하도록 권장했다.

원서접수 과정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했을 때 수험생을 구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대학이 원서접수 기간 중 전산 시스템 관리기관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시스템 장애 발생 사실을 통지받으면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공정성 관련 위원회를 거쳐 미제출 서류의 사후 제출 등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거주요건도 일부 개정된다. 현행 농어촌전형은 해당 지역 학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교 졸업일까지 학생과 부모 등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합격한 뒤 고교 졸업 전에 이사했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학생·학부모와 대학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29학년도부터는 졸업예정자 합격생이 입학일부터 해당 대학에 등록한 날까지 농어촌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예외적으로 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이미 고교를 졸업한 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광진구 한양연립 모아주택 전경.

/서울시

내달 '모아주택 1호' 입주

서울시 광진 한양연립 모아주택 준공
“순차적으로 주택공급 성과 이어질 것”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2022년 도입한 '모아주택'의 첫 주택인 광진구 한양연립이 다음 달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기존 99세대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가 215세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면서 모아주택을 통한 주택 공급이 처음 현실화됐다.

서울시는 광진구한양연립 모아주택이 지난 25일 준공돼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한양연립은 2024년 2월 착공한 모아주택 1호 사업으로, 지하 2층~지상 10~15층, 4개동, 총 215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블록 단위 소유자들이 토지를 모아 공동주택을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이번 사업 과정에서는 서울시의 층수 규제 완화가 적용됐다. 한양연

립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이하 지역으로 당초 211세대, 6개동 규모로 계획됐다. 하지만 2022년 5월 '모아주택 심의 기준'이 도입되면서 층수가 평균 13층·최고 15층까지 완화됐다. 이에 따라 동수는 6개동에서 4개동으로 줄고 세대수는 211세대에서 215세대로 4세대 늘었다.

한양연립은 통합심의 후 8개월 만에 착공하고 착공 2년 6개월 만에 준공됐다. 조합원들은 층수 완화 등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개선된 데다 빠른 사업 추진으로 금융비용을 절감해 조합원 부담도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해 2031년까지 4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착공 1호 사업이 실제 입주까지 이어진 만큼 앞으로 착공 중인 다른 모아주택 사업들도 순차적으로 주택 공급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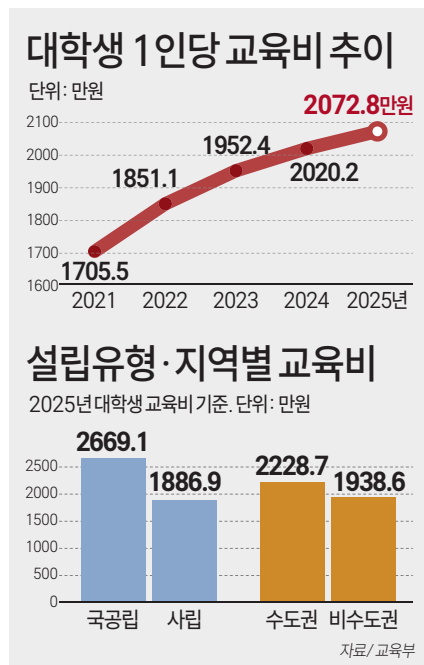
지난해 4년제 대학생 1인당 교육비 2072.8만원

교육부·대교협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전년대비 2.6% ↑… 전문대는 1.2% ↓

4년제 대학이 학생 한 명에게 투입한 교육비가 지난해 2073만원에 육박하며 전년대비 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228만7000원으로 비수도권 대학의 1938만6000원보다 높았다. 반면 전문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281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2% 감소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결산 기준 일반·교육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72만8000원으로 전년 2020만2000원보다 52만6000원, 2.6% 증가했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2669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했고, 사립대는 1886만9000원으로 2.6%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이 2228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



했고 비수도권 대학은 1938만6000원으로 1.7% 증가했다.

장학금 규모는 증가했다. 일반·교육대학의 지난해 장학금 총액은 5조3982억원으로 전년대비 3691억원, 7.3% 늘었다. 국가장학금이 3조5232억원으로 전체의

65.3%를 차지했고 교내 장학금은 1조 6773억원으로 31.1%였다.

학생 1인당 장학금은 403만원으로 전년 382만9000원보다 5.2% 증가했다. 국공립대가 342만3000원, 사립대가 420만8000원이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학생 1인당 장학금이 418만6000원으로 수도권 대학 382만9000원보다 많았다. 증가율도 비수도권이 6.4%로 수도권 3.7%보다 높았다.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수도 늘었다. 2025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일반·교육대학 학생은 46만3764명으로 전년대비 1만574명, 2.3% 증가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23만7692명,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22만6072명이었다. 다만 전체 재학생 중 학자금 대출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3%로 전년과 같았다.

대학 연구비도 증가했다. 일반·교육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는 1억2364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했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상수도 공급기반 대폭 강화

풍산배수지 신설·송수관로 복선화

고양시가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물 수요 증가에 대비해 상수도 공급 기반을 대폭 강화한다. 2040년을 목표로 한 수도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배수지 확충과 송수관로 복선화, 노후 관로 정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7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고양시 수도정비계획 변경안'을 승인 받았으며,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창릉공공주택지구와 풍동2지구, 성사혁신지구 등 주요 개발사업에 따른 장래 용수 수요가 반영됐다. 시는 2040년 하루 최대 수요량을 46만4277㎥로 전망하고, 하루 최대 47만1000㎥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로 했다.

수돗물 공급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배수지 확충도 본격화한다. 변경안에는 기존 배수지 2곳을 증설하고 3곳을 새롭게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풍동·식사동 일원에는 1만㎥ 규모의 풍산배수지가 새로 들어선다. 지난 7월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했으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배수지 확충과 함께 송수관로의 안전성 확보에도 나선다. 고양정수장 계통 1단계 송수관로 안정화 사업을 통해 성사동·행신동·토당동·화정동 일대 송수관로 3.08km를 복선화하고, 노후 송수관로 6.11km를 개량할 계획이다. 주교배수지 증설과 송수관로 안정화 사업에는 총 489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인하대, 17대 총장에 최기영 교수 선임

인하대학교 제17대 총장에 최기영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사진)가 선임됐다.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사장 성용락)은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제17대 인하대 총장에 최기영 교수를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임기는 4년이며 다음 달 1일부터 2030년 8월 31일까지다.

정석인하학원은 정관에 따라 지난달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총장후보자를 공모해 복수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했으며 27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최기



영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했다.

이사회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비전과 경영 역량을 면밀히 심의한 결과, 최기영 후보가 학령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 속에서 인하대의 도약을 이끌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최기영 신임 총장은 서울대학교 항공공

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항공공학과 석사,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인하대 국제화사업단장, 교학부총장 등을 역임하며 고등교육 발전과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에 기여해 왔다.

최기영 신임 총장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인하대의 제17대 총장으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학생 중심의 교육 혁신, 연구 역량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멀티 캠퍼스 구축, 지역 사회 및 산업체와의 견고한 협력 체계를 통해 인하대를 세계적 수준의 명문 사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

하남시, ‘더 좋은소비 페스타 in 하남’ 개최

경기 하남시가 시민들의 일상적인 소비를 지역사회 가치 실천으로 연결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하남시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스타필드 하남 센트럴 아트리움에서 ‘2026년 더 좋은소비 페스타 in 하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하남시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스타필드 하남이 후원한다. 하남시를 비롯한 경기

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38개사가 참여해 식품과 생활용품, 친환경 제품 등 다양한 상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이번 행사의 핵심은 단순한 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소비와 사회적 가치의 연결에 있다. 참여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시민은 필요한 상품을 구입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나눔에도 참여할 수 있다. 행사 기간 판매 수익의 일부는 지역사회에 기부될 예정이다.

/하남(경기)=유진채 기자 yujin@